

# ‘주주권 내세워 기업압박’ 안돼... 운용쪽에 독립권한을

(기금 운용위)

## 국민연금 변해야 산다

〈下〉 독립성 확보 과제

국민연금, 30대기업 지분 9%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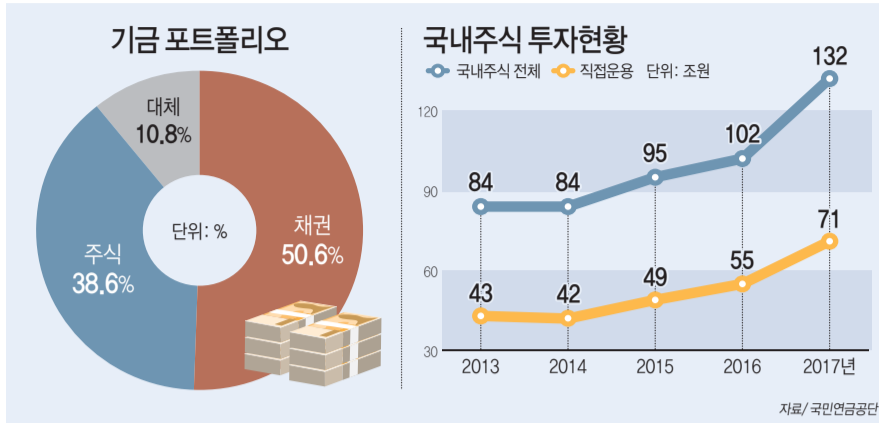
노조추천 사외이사·S코드 도입시 기업때리기 등 부작용 우려도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열린 KB금융주주총회에서 노조 추천 사외이사 도입에 찬성표를 던지며 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가결에는 실패했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이 이를 의식해 청와대나 보건복지부의 입김 아래 주주 이해에 반하는 ‘대통령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KB금융의 최대 주주로 9.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의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기업은 노동자를 식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동자가) 의사 결정에는 왜 참여하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에 우회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일부로 참석해 목소리를 내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재계 관계자들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라는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 정부가 진보진영과 노동계의 여론을 등에 업고 전방위적 대기업 압박에 나선 가운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정권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7일 기업성과평가업체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상위 30대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은 평균 8.8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기업의 경영권이나 지분을 둘러싼 쟁탈전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거나 이사회 구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특정 기업을 흔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과 관련해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 하반기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는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은 지금과 같은 국민연금 지배구조 하에선 기업 경쟁력이나 수익을 높이기보다 정부의 ‘기업 때리기’로 작용할 여지가 더 크다는 주장이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정부에서 못 건드리게 해야 한다”며 운용본부의 독립성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가입자만 생각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에 현재 상설화가 추진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금운용위가 국민연금의 주요 투자는 물론 장기적 정책과 이에 따른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른 선결 과제로 인사권 독립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민연금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복지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다. 기금운용본부장의 경우 임추위 추천 이후 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이 임명한다. 결국 두 자리 모두 정권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금까지 국민연금 이사장 및 기금운용본부장은 당시 정권의 실세와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 내정되어 온 바 있다.

복지부는 시장의 이 같은 지적에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당연직을 대폭 축소하는 식으로 독립성을 강화한 뒤 해당 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장을 뽑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가 공모

19일까지 접수... 총 38명·6월 임용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의 보다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투자상품 운용, 포트폴리오 관리, 금융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 등과 같은 투자실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과 면접 등을 거쳐 기금운용 전문가를 채용한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모집을 통해 국내외 증권 투자 및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등 기금운용 각 분야 업무를 담당할 기금운용직으로 총 3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중 임용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자의 성별, 연령, 학력 등을 지원서 기재사항에서 제외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19일까지이며 채용 일정 및 지원자격 요건 등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투자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수 운용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많은 인재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 신용등급 BBB급 회사채도 ‘귀한 대접’

〉〉 1면 ‘하이어나 투자’서 계속

한진의 500억 발행에 1040억 몰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NPL시장이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투자자 풀을 확대하고 전문적인 시장을 조성해 특별채권 입찰시장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을 포함한 국부펀드, 보험·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시장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미운 오리 ‘BBB’급 회사채 ‘백조’

정크본드에 가까운 신용등급 BBB급 회사채도 최근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두달 동안에만 1480억원어치가 팔렸다. 지난해 4분기 2600억원 등을 포함하면 7400억원에 달한다.

기관투자자의 AA급 이상 우량 회사채

편식으로 신용등급 A급 회사채조차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인이다.

신용등급이 ‘BBB+’인 한진은 올해 5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수요예측(기관 사전청약)에 1040억원 규모의 기관 자금이 몰렸다.

한진은 재무구조 약화로 2014년 말 이후 추진한 다섯 차례의 수요예측에서 모두 ‘미달’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7월 2년6개월 만에 수요예측에 성공한 바 있다. ‘BBB+’ 등급인 AJ네트웍스는 수요예측에서 400억원 모집에 910억원의 뭉치돈이 몰렸다.

한편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의 지난달 아파트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은 70.0%에 달했다. 이는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1월 이후 최고치다.

/김문호 기자 kmh@

## 대우전자와 대유품이 하나의 대우가 되다

글로벌 가전전문기업 대우전자가 대유품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태양광, 금융, 레저 등  
고객만족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성장을 해온 대유품 -  
대우전자와 더 큰 이름으로 글로벌 그룹을 향해 도약하겠습니다

- ▶ 대우전자
- ▶ 대유품위니아
- ▶ 대유품에이텍
- ▶ 대유품베르켄트리클럽

- ▶ 대우전자서비스
- ▶ 대유품위니아서비스
- ▶ 대유품플러스
- ▶ 스마트저축은행